

## 국제개발협력 범분야 평가 추진정책 논의 동향

현 미 주 (외교통상부 개발정책과 2등서기관)

### 목 차

- I. 우리 국제개발협력정책에서의 범분야 주류화 논의 현황
- II. 범분야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III. 우리나라 범분야 평가방안 주요 내용
- IV. 향후 과제 및 정부의 고려사항

## I. 우리 국제개발협력정책에서의 범분야 주류화 논의 현황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한지 이제 만 2년 반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리 국제개발협력 정책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2010년 7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발효되었으며, 2010년 10월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제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2011-2015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의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통합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의 범분야 이슈에 대한 방향성은 상기 법과 정책문서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는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정신 및 목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더불어,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11-2015 기본계획」에 명시된 우리 정부의 중기 개발협력 정책 6대 전략 중 하나는 ‘환경·여성·민주주의 등 범분야적 보편가치 지향’으로, 이에 따라 각 무상원조 시행

기관은 환경·여성·인권·민주주의 등 가치규범을 사업 수립 및 이행시 충분히 반영해야하며, 특히 환경과 여성에 초점을 둔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사실 2010년 이전에도 우리 원조 사업 중 환경 및 여성 관련 사업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주류화를 위한 시도는 계속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 원조 전담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 여성 및 환경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2008년 KOICA 환경 주류화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환경 및 여성에 전담된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주류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무상원조 통합 전략의 하나로 범분야 이슈가 명시된 것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ODA 선진화 방안」에 따라 작성된 「2011-2015 기본계획」으로, 이는 범분야 주류화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추진방향 측면에서 범분야 이슈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게 된 것은 국제원조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선진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다. 2005년 파리 선언(40조 및 41조) 그리고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3조, 13조 c항, 21조 b항, 23조 a항)<sup>1)</sup> 등 국제개발협력 국제규범은 환경 및 여성을 원조사업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 규범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2008년 OECD DAC 가입을 위한 우리나라 특별검토(special review)시 DAC측이 범분야 이슈의 점진적 확대와 주류화를 권고하게 되면서, 범분야 이슈가 우리 정책 문서에 명시적으로 다루어지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통합적인 전략과 추진방향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범분야 이슈가 실제 원조사업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시행단계’에서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경우 환경 및 여성에 특화된 사업이 아닌, 범분야 이슈 주류화의 경우 시행단계에서의 노력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범분야 이슈 자체가 사업의 주된 목표가 아닌 경우에는 원조 사업의 모든 시행단계가 범분야를 ‘고려’ 하는 부차적인 과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범분야 이슈에 대한 고려가 가지는 이러한 부차적인 성격으로 인해 범분야에 대한 고려는 지속적인 확인과 점검과정이 있지 않으면 누락되기 쉽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1년에 천 여개가 넘는 사업들에 대하여 범분야 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범분야 평가방안 추진을 선택하였다. 즉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확인과 점검과정을 공식화함으로써, 범분야에 대한 고려 확보, 즉 주류화를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

---

1)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 해당 부분은 맨 뒤의 〈부록〉 참조.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초 제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2011년 통합평가계획은 외교통상부/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으로 범분야 이슈 평가방안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KOICA 평가실,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수출입은행 경제협력실(EDCF) 및 여성부 국제협력담당관실, 환경부 국제협력담당관실과 함께 범분야 평가방안 마련 팀을 구성하여 범분야 평가 방안을 작성하였으며, 동 방안은 제9차 평가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금번 기고는 범분야 평가방안을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및 범분야 평가방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범분야 이슈 주류화 추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한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 II. 범분야 평가 현황 및 문제점

지난 해 범분야 평가방안 마련 과정에서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은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현재 우리 범분야 평가 현황 및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원조 전담기관

우선 원조 전담기관인 KOICA와 EDCF의 경우, 범분야 평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분야 평가를 위한 기관 내 제도 및 절차를 이미 구축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상세 현황은 아래 박스 참조) 그러나 기구축된 제도가 이행으로 원활히 연계되지 않는 문제, 즉 전체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범분야 평가 이행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 사전 및 중간 평가시 동 사업이 환경 측면, 여성 측면에서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준다면 어떤 방식으로 주류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기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KOICA의 경우, KOICA 환경 가이드라인을 2008년 수립하고 실제 사업에 반영은 하고 있으나, KOICA 전체 사업에 대한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저감대책이 수립되어 이를 이행한 사례는 없다. 여성 분야의 경우에는 사전평가(젠더마커 분류작업<sup>2)</sup>) 측면에서 KOICA의 활동이 여타 기관에 비해 매우 우수<sup>3)</sup>하다고 볼 수 있으나, 2011년 발간된 KOICA 성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시범 단계로 보인다.

EDCF 역시 사전, 중간, 사후 평가시 환경 및 여성 분야를 포함하는 사회 이슈에 대한 평가 시

행체제는 구축되어 있으나, 사후평가 단계에서는 정성평가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정량적 측면을 포함한 심층적인 환경분야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성 분야의 경우에는 관련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 실질적인 성과 지표 활용 실적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2010년-2011년간 보건 분야 EDCF 승인 사업의 50%만이 모성사망을 감소 등 여성분야와 직접 연관된 성과지표를 포함하고 있어 주류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참고자료: 2011년 기준 원조 전담기관들의 범분야 평가 현황〉

#### (1) KOICA

DAC 평가 5대 기준\* 외에 범분야(환경 및 여성)를 추가하여 평가를 실시 중으로 '사전 평가 분류 작업' 등 환경분야 평가 절차가 모두 존재하고 있다. KOICA의 환경 및 여성 분야 평가 절차는 아래와 같다.

#### (환경분야 평가 절차)

평가단계	절차	환경분야		
사전평가	사전심사 (Screen) 작업	환경가이드라인		
	분류작업	C	B	A
	기초환경조사	미해당	해당	미해당
	환경영향평가	미해당	미해당	해당
	저감대책 수립	미해당	해당	미해당
중간평가	저감대책 이행여부	미해당	해당	해당
종료평가	저감대책 이행여부	미해당	해당	해당
사후평가	DAC 5대기준 이외 환경 평가항목 포함	미해당	해당	해당

2) ECD DAC 젠더마커 (Gender Policy Marker) : 사업 담당자가 사전타당성조사의 성 분석 결과를 통해 아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것

- 2점 :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가 목표가 아니라면 형성되지 않았을 사업
- 1점 : 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가 사업의 주목표는 아니나, 성주류화된 접근을 통해 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사업
- 0점 : 사업의 목표와 성격이 수혜자의 성별 및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

3) 2010년 기준 젠더마커 실적(초청연수, NGO지원, 국제기구협력사업 모두 포함) : 마커 2번 14개 사업, 마커 1번 63개 사업

\* KOICA 환경가이드라인(2008)에 의거, 당해 원조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A,B,C로 분류  
 - 카테고리 A사업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사업으로, KOICA는 에코도르 갈라파고스 태양광 발전소 사업 추진시 이를 카테고리 A 사업으로 분류하고 기초환경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 바 있음

### (여성 분야)

	절차	젠더분야		
사전평가	사전심사 (Screen) 작업	젠더마커 활용		
	분류작업	0	1	2
	성분석 (gender analysis)	미해당	해당	해당
	사업 심사	미해당	해당	해당
중간평가	성주류화 요소 반영	미해당	해당	해당
종료평가	성주류화 이행 여부	미해당	해당	해당
사후평가	성인지적 성과 여부	미해당	해당	해당
	DAC 5대기준 이외 여성 평가항목 포함	미해당	해당	해당

#### (2) EDCF

경협기금업무 취급규정에 따라, △ ‘차관요청사업이 차주국의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 사업 심사(사전평가)시 주요 심사사항 중 하나이며, △사업 개시 후 6개월마다 사업진도 및 환경 및 사회 이슈 관련 조치내용 확인(중간평가) △사업평가 보고서에 DAC 평가 5대 기준 중 영향력(Impact) 평가시 ① 환경적 영향 및 ② 빈곤층, 여성 등 취약계층에 미친 사회적 영향 평가 수행(사후평가)를 시행 중이다.

### (환경분야 평가 절차)

평가단계	절차	환경분야		
사전평가	사전심사 (Screen) 작업	환경가이드라인		
	분류작업	C	B	A
	심사	미해당	해당	해당
	환경영향평가	미해당	해당(자율)	해당
	사업 심사	미해당	해당	해당
중간평가	저감대책 이행여부	미해당	해당(자율)	해당
종료평가	저감대책 이행여부	미해당	해당(자율)	해당
사후평가	DAC 5대기준 이외 여성 평가항목 포함	미해당	해당	해당

\* (사전평가) EDCF 환경영향 심사지침(‘06.11월)에 의거, 선정된 사업에 대해 수원국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고서 제출 의무화가 이루어진 사례는 2010-2011년 기준 전체 사업의 약 25%(13건)

\* (중간평가) 사업 컨설턴트가 환경 이슈를 포함하여 사업진도보고서를 작성

\* (사후평가) ‘사후평가보고서작성 가이드라인(2011)’에 의거, DAC 평가 5대 기준 중 영향력(impact) 평가시 환경적 측면의 평가를 포함

### (여성 분야 평가 절차)

\* 환경 분야와 같은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영향 평가 절차는 존재

- EDCF Safeguard Policy 수립을 통해 환경·사회영향 평가에 대한 세부규정 등을 보완하여 전단계에 걸친 평가 기능을 강화할 계획

## 2. 여타 시행기관

원조 전담기관들이 범분야 평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적인 틀을 어느 정도 갖춘 상황인 반면,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약 30여 개의 무상원조 시행기관들의 경우에는 범분야에 대한 고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평가 설계시부터 범분야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범분야 평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성분리 통계와 같은 범분야 관련 통계 등 기초 조사(baseline study)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 보고서를 보면 범분야가 언급되어 있지 않거나, 언급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 추측 또는 주관적인 평가에 가깝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실 여타 무상원조 시행기관의 경우에는 원조 전담기관과 달리 평가에 대한 전문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정부적으로 범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범분야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는 까닭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범분야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팀은 상기 현황 조사 및 문제점 파악 과정에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즉 △평가 역량수준이 다른 원조전담기관과 여타 시행기관에 대한 접근을 달리해야하며, △범분야 평가가 결국은 사전 평가 설계시부터 고려되고, 기초

조사 방식, 평가지표, 평가 도구 등이 시행기관간 공유되어야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평가방안을 실시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에 서술될 범분야 평가방안은 다음의 두 가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한다. 첫째, 현재 원조전담기관인 KOICA와 EDCF로 하여금 기관 내 범분야 주류화를 “계획”단계에서 “이행”단계로 발전시켜, 원조전담기관의 범분야 평가를 실질적으로 확립하는 것이며, 둘째 원조전담 기관에서 검증받은 평가방식과 도구 등 범분야 평가 관련 지식을 여타 시행기관에게 공유하여, 여타 시행기관의 역량과 환경에 걸맞은 범분야 평가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된 범분야 평가방안은 전정부적으로 적용될 범분야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기반 마련 작업의 의의를 가진다.

### III. 우리나라 범분야 평가 방안 주요 내용

범분야 평가방안은 크게 기본방향 및 환경 및 여성 각각 분야별 추진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기적으로 모든 원조 시행기관들의 평가 전체 과정에 걸쳐 환경 영향 및 양성평등, 여성역량 강화를 고려한 평가를 추진한다는 기본 방향에 따라 범분야 평가 단계적 도입 및 확대를 위한 각 기관별장·단기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동 방안에 따르면, 20120-2013년은 우선적으로 원조 전담기관에서 시범 평가사례를 도출하여, 범분야 사전평가·중간평가·종료평가 결과보고서의 모범사례를 제시한다. 환경 분야는 ‘EDCF 베트남 밤콩 교량사업’이, 여성 분야는 ‘KOICA 가나 불타지역 동서 크리치군 식수·위생 개선사업’에 대해 사업 전단계에 걸쳐 범분야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며, 원조전담기관이 작성하는 평가보고서는 여타 기관이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시행기관간에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원조전담기관은 시범 사례를 통해 범분야 평가를 통해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교훈 및 보다 효과적인 범분야 평가를 위해 범분야 평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할 요소(범분야 평가 방법론 등)들을 정리하여 모범 사례 보고서와 함께 2012년 말까지 평가협조기관인 외교부와 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 【참고】베트남 밤콩 교량사업 개요

사업명		Central Mekong Connectivity Project
차주		베트남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 MOF)
사업실시기관		Cuu Long Corporate for Investment, Development and Project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지원예정금액		200백만 달러 (총사업규모: 751백만 달러)
협조용자기관		ADB
차관조건		연 0.05%, 상환기간 40년 (거치기간 10년 포함)
차관종류		개발사업차관
사업목적	전체 (총3개 부문)	A : 카오랑 교량 (2.0km) 및 접근 도로 (5.8km) B : 연결도로 (15.7km) C : 밤콩 교량 (3.0km) 및 접근 도로 (2.8km)
	EDCF	C (밤콩 교량 건설)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콩강 남북을 연결하는 교량 및 연결도로 건설을 통해 베트남 전국을 잇는 도로망 완성</li> <li>• 전국 도로망 건설을 통해 지역간 연결성을 높임으로써 사회 개발 및 경제발전 도모</li> </ul>

### 【참고】가나 볼타지역 동서 크라치군 식수 위생 개선사업

사업목적		식수 및 위생시설 건축,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개선
사업내용		식수시설 및 위생시설 설치, 주민 보건역량 강화, 초청연수 등
사업대상지		Volta Region 내 Krachi West 및 Krachi East District
사업규모/기간		400만불/ 2011~2013(3년)
수혜자		볼타 지역 동서크라치군 주민 약 20만명
기대효과	한국	한국의 기생충 질병 퇴치 경험 전수
	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들의 안전한 식수 위생 환경 마련</li> <li>-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보건위생환경 증진</li> </ul>
사업시행기관	한국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나 수자원부 (Ministry of Water Resources, Works &amp; Housing)</li> <li>- 지역 식수·위생청 (Community Water &amp; Sanitation Agency)</li> <li>- Krachi East 및 West 각 군청 (District Assembly)</li> <li>- 가나 보건부(Ministry of Health) 및 보건청(Ghana Health Service), 교육청 (Ghana Education Service) 등 협조</li> </ul>



평가 협조기관은 범분야 평가 관련 선진국 사례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범분야 평가시 적용되는 여타 공여국들의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고하여 원조전담기관의 사례 보고서와 함께 우리 평가가이드라인 작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에는 본격적으로 전 정부적으로 사용될 범분야 평가 가이드라인/매뉴얼(안)이 여타 시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립되면, 2014년 전 시행기관에 전파·확산될 계획이다. 범분야 평가 가이드라인/매뉴얼(안)은 원조 전담기관의 범분야 주류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시범사례 교환 및 여타기관의 협의를 거쳐 평가협조기관, 원조전담기관(KOICA/EDCF) 및 관계기관(환경부/여성부)이 작성하여 2014년초 평가소위원회에 상정·확정될 것이다.

가이드라인/매뉴얼(안)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시행기관은 사업 계획 수립시 환경 마커 및 젠더 마커 사용을 통해 사업의 성격을 파악하고, 범분야 통계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범분야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가를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금번 범분야 평가방안은 2012년 3월에 시행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를 권장하고 있으며, 2013년 연간시행계획부터 해당 사업의 범분야 평가필요성 여부를 기관 스스로 검토하고 주관기관이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가이드라인 작업과 병행하여 여타 시행기관의 범분야 평가에 대한 인지도 및 역량을 지속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타 시행기관의 평가 조직 및 역량 부족문제를 감안하여 평가협조기관은 시행기관의 역량 확대를 위한 세미나 등 평가 역량 교육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여타 시행기관의 평가 지원을 고려 중이다.

## IV. 향후 과제 및 정부의 고려사항

제9차 평가소위에서 의결되어 현재 시행 중인 범분야 평가방안은 범분야 평가체제가 실질적으로 확립되어, 범분야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번 범분야 평가 방안을 통해 2014년 범분야 평가 가이드라인을 완성한다고 하더라도, 동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노력들이 필요하다.

첫째, 평가 분야의 조직과 예산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 통합평

가계획, 평가 소위원회 등 통합ODA평가 관련 제도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 사업 평가가 원활히 진행되어 사업 계획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가 관련 한정된 조직과 예산은 전반적으로 평가가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고 잘 이행되어 보다 더 좋은 원조정책으로 이어지는 순환보다는 정책과 사업 효과성 증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평가를 위한 평가로만 존재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범분야 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특히, 범분야 평가의 경우 기초환경조사, 환경영향평가, 저감대책 수립, 성분분석 등의 활동들이 필히 이루어져야하는데 이러한 조사·분석 활동은 조직과 예산 없이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수원국들은 유상원조 프로젝트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수행주체가 수원국이며, 수원국 국내법상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치 않다고 하면서 시간과 재원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여타 시행기관들이 범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 조직 및 예산의 현실적인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범분야 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원조 프로그램이 환경과 여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ODA 평가정책을 지속 강화해나가야 한다. 30여개가 넘는 모든 시행 기관마다 평가 관련 조직과 예산을 별도로 주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원조전담기관의 평가조직 및 예산을 확대하여, 여타 시행기관의 범분야 평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범분야 평가는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및 개별 사업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수원국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개별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부터 범분야를 고려하지 않으면, 범분야 평가가 의미있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의 경우 연간시행계획 작성시 범분야 사전심사작업(screening)을 실시하고 필요시 범분야 지표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인 범분야 평가에 대한 인지도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범분야 평가방안이 뿌리를 확실히 내려, 전정부적으로 범분야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가지고 원조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정부에 걸친 범분야 평가에 대한 높은 이해와 우리 국민들의 범분야 평가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이다. 전자는 분절화된 우리 원조 체계 하에서 효과적으로 범분야 평가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며, 후자는 원조사업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국민의 요구가 우리의 개발협력 평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중요하다. 따라서 평가 협조기관으로서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범분야 평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일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범분야 평가 가이드라인이 도출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외교통상부·기획재정부·환경부·여성부 및 KOICA·EDCF의 꾸준한 고민과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a,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b,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추진방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2011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계획」

외교통상부, 2012a, 「범분야 평가방안 시행」

외교통상부, 2012b, 공문: 개발정책과-800(2012.3.7)

OECD, 2008, "Development Co-ope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AC Special Review," OECD, Paris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2005)

The Accra Agenda for Action (2008)

[http://www.oecd.org/document/18/0,3746,en\\_2649\\_3236398\\_35401554\\_1\\_1\\_1\\_1,00.html](http://www.oecd.org/document/18/0,3746,en_2649_3236398_35401554_1_1_1_1,00.html)

## 〈부록〉

### 〈2005년 파리 선언 원문: 40조 및 41조〉

40. Donors have achieved considerable progress in harmonisation arou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ncluding relevant health and social issues at the project level. This progress needs to be deepened, including on addressing implications of global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desertification and loss of biodiversity.
41. Donors and partner countries jointly commit to:
- Strengthen the application of EIAs and deepen common procedures for projects, including consultations with stake holders; and develop and apply common approaches for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t the sector and national levels
  - Continue to develop the specialised technical and policy capacity issues, such as gender equality and other thematic issues including those financed by dedicated funds.

###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 원문: 3조, 13조 c항; 21조 b항; 23조 a항〉

3. We need to achieve much more if all countries are to meet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Aid is only one part of the development picture. Democracy, economic growth, social progress and care for the environment are the prime engines of development in all countries. Addressing inequalities of income and opportunity within countries and between states is essential to global progress. Gender equality,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re cornerstones for achieving enduring impact on the lives and potential of poor women, men and children. It is vital that all our policies address these issues in a more systematic and coherent way.
13. c) Developing countries and donors will ensure that their respective development policies and programmes are designed and implemented in ways consistent with their agreed international commitments on gender equality, human rights, disabil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21. b) At country level, donors and developing countries will work and agree on a set of realistic peace- and state-building objectives that address the root causes of conflict and fragility and help ensure the protection and participation of women. This process will be informed by international dialogue between partners and donors on these objectives as prerequisites for development.
23. a) Developing countries will strengthen the quality of policy design,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by improving information systems, including, as appropriate, disaggregating data by sex, region and socioeconomic status.